

김명수의 “한류 제조하기: 역사제도주의적 해석”은 한류를 일시적 유행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제도적 맥락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한류가 지속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해석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을 느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국면적이고 일면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문화홍종화론, 문화적 근원주의, 역사제도주의적 관점, 문화민족주의, 문화제국주의, 문화수용론,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며, 한류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류의 결정적 국면에 집중했다. 다시말해, 한류가 제도적 맥락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류가 특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역사제도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그는 한류의 발전 과정의 특징을 전방위적, 전천후적 역동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논문에서 한류가 제도로써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류는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산업이며 국가가 문화산업화의 경로를 설정했다고 한다. 또한, 연예기획사와 같은 민간부문에서는 포드주의적 문화산업의 경로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합쳐져 한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포드주의가 한류에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포드주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점들이 한류를 지탱해 온 기반이며 모순적이라는 것이 한류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한류의 모순적인 특징 때문에, 한류의 내용과 형식은 역동적이면서도 상업성을 띄고 획일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저자의 주장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존재한다. 우선, 포드주의가 한류에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필자는 한국의 문화산업에서 포드주의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저자가 말하는 포드주의는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개발한 생산 방식이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한 대의 제조 공정을 단순 노동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개발하고 노동자 한 명에게 부품 하나가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즉, 포드주의는 포드가 행한 것처럼, 일관된 작업 과정을 통해 노동과정을 개편하고, 노동 생산성을 증대 시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포드주의는 획일화와 표준화를 특징으로 한다. 저자는 이러한 획일화와 표준화가 한류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자도 논문에서 언급했듯 문화산업은 창의성의 영역이기에 문화산업을 지탱하는 요소가 포드주의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과거의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배출한 아이돌들과 연예인들에게는 획일화된 특징들이 보이기도 한다. 당시에는 한류가 유행하는 이유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었기에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들을 따라서

표준화된 아이돌들을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찍어내곤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저자가 말한 “한류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에서는 포드주의가 더더욱 적용될 수 없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을 의미하며, 중국 문화권, 서양국가 및 전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의 콘텐츠들을 의미한다. 즉, 한국인들도 관심없어 하는 시청률 1% 미만대의 드라마나, 이름조차 생소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아닌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싸이 등의 인물 혹은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국가가 문화 산업에 개입하는 것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에 국가가 문화산업화를 주도하면서 한류를 육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저자의 말처럼 국가가 문화 산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류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생성한 것이며 정부는 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빅히트 대표의 기업경영 능력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성 덕분이지 국가의 제도적 도움은 전혀 없었다. 즉, 한류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저자의 논리에는 동의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저자의 주장과 문화산업이 포드주의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저자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포드주의가 한류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과거 일부의 연예인들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현대 문화 산업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국가의 개입은 기업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저해하기에, 한류 형성에 국가가 개입했다면 한류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포드주의 또한 창의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자처럼 포드주의가 문화산업에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은 문화산업을 망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논문이 저술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류가 현재와 같은 파급력을 미치지 못했기에 저자와 같이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SM, YG, JYP, 빅히트 모두 각각의 특색이 다른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한다. 더 이상 성공을 위한 기준이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빅히트의 방탄소년단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과거 포드주의가 한류에서 적용될 때, 방탄소년단 또한 여타 다른 아이돌들과 같이 중독성 있는 노래, 짙은 화장 등으로 차별성이 없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주목을 받게 된 건 그들만의 음악을 담기 시작해서였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및 한류의 추세가 그러하다. 오징어게임이 상업성을 띄고 어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클리셰들이 포함된 건 사실이다. 포드주의가 지배적이라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 수 있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즉, 한류에 포드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자는 한류를 지탱한 것은 포드주의가 아닌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한류가 갖는 포드주의의 원리로 돌아갔다면 기존의 아이돌들과 연예인들 모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벤치마킹 한다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